

기고

리튬이온배터리, 편리함 속의 불씨를 경계하자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PM) 보급이 늘어나면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동스쿠터 배터리 화재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나주 노안면에서 트럭에 적재된 드론용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 고온·밀폐된 보관환경 속에서 '열폭주' 현상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빠른 초기 진화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처럼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길거리 등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 가벼운 무게, 충·방전 효율성이 뛰어나 휴대용 전자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 뒤에는 과충전, 외부충격, 부적절한 보관으로 사용시 화재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일상 가까이에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결코 가볍지 않은 위험성도 함께 존재한다. 지난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에 달하며 이중 전동 킥보드 485건(71.8%)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매년 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C 인증 정품 충전기 사용 - 인증되지 않은 저가 충전기 사용은 위험을 키운다
2. 충전 관리 - 충전 완료되면 즉시 플러그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3. 충전 장소 - 통풍이 잘되고 주변에 가연성 물품이 없는 장소에서 충전한다. ※현관문, 비상구 근처 충전금지(화재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함)
4. 외부 충격 주의 - 배터리를 떨어뜨리거나 임의 개조·수리하지 않는다
5. 안전한 보관 -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작은 부주의가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불씨로 번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올바른 사용 습관이 중요하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시하

겸손.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고 할 수 없다. 겸손이 주유할 때 세상은 낙원이 될 수 있다. 법이 없어도 있는 것보다 더 질서가 잡힐 수 있다. 그야말로 세상이 항기로 가득 찰 수 있던 말이다. 겸손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힘도 들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도 필요치 않다. 이렇게도 손쉽게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겸손이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도 겸손이다. 끝없는 욕심이 겸손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각종 행사장에 가봐라. 잔치집에도. 서로들 뒷자리에 앉으려고 난리들이다. 그래야 자신의 권위가 더 빛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사를 하는 것보다는 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산행을 하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넬 때도 반갑게 받아주면서 인사를 되돌려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큰둥한 모습으로 받아먹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말할 때는 입에 게거품을 물으며 장황함을 늘어놓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면 금방 시들거리면서 조는 사람도 있다. 자신에게는 존경을 써가며 인사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대충하는 이도 있다.

남의 허물은 조야만한 것도 태산처럼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겸손이 춤출 때 세상이 비로소

부풀려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도 자신의 큰 허물은 조야도 아닌 것처럼 여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법이 있어도 그 법이 부족할 정도로 혼탁해져 가고있는 것이다. 도덕률과 종교가 있어도 오히려 부족할 정도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와 사찰 등 성전이 생기고 또 생겨도 이 세상의 혼탁함은 결코 맑아지지 않고 더더욱 탁해져가만 하는가 보다. 이는 곧 자신을 낮추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어떤 방면에서도 자신을, 자기 집단을 낮추려 하는 자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마다 아귀다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다. 정치권에서도, 경제권에서도, 점잖게 문화

와 예술을 논한다는 문화계와 예술계에 서마저도 말이다. 어디 그뿐인가. 인간의 영혼을 달래주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종교계는 또 어떤가. 가끔 스님들과 신도들이 뒤엉켜 소림사의 결투를 보여 주지 않던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바 세계의 욕심이 그대로 사찰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밝혀진 중국 소림사의 추악상은 세상을 매우 놀라게 하고 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대대로 상속에기 위해서 또는 신·구세력의 갈등으로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던가. 다른 곳도 아닌 종교계에서까지 이런 하극상의 행태들이 빚어질 때마다 절망

을 봐야 했다. 그들의 그런 모습들은 보통 인간들의 그것들보다 더 추하고 악해 보였다.

신을 빙자하면서 가장 하극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신자들에게는 번질번질한 설교를 하면서도. 오죽했으면 목회자 자신들마저도 자신들이 한 설교의 10%만 목회자 자신들이 지켜도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했겠는가. 물론 목회자도 인간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구역질 나는 모습들까지 보여줘서는 안 되지 않는가. 명색이 신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회자들이 말이다. 만약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목회자의 길을 벗어나라. 그런 다음 범인들 처럼 살라. 그러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왜 발생하는가. 바로 겸양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겸손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 본다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하지만 겸손이 춤출 때 세상이 비로소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말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최근 주택화재 피해를 살펴보면, 불길 자체보다 화재 사실을 늦게 알거나 초기 대응이 지연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화재 사망 원인의 절반 이상이 '화재 인지 지연' 때문이라는 점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에서는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경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기는 연기와 열을 감지해 빠르게 경보음을 울려주고, 소화기는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즉, 경보기는 알리고, 소화기는 끄는 역할을 하며, 두 장치가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관내 한 가정에서는 전열기 과열로 난 불을 거실에 설치된 경보기가 즉시 알려주었고, 가족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7월 강진읍 한 음식점 예

컨 실외기 화재에서는 주인이 비치해 둔 분말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이 인근 건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현장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지킴이입니다.

강진소방서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상담과 판매업체 안내, 독거노인 등 취

약계층 지원, 올바른 사용법 교육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5~10분이 걸립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한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고 초기 대응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금 바로 각 가정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 우리 집 안전지킴이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진소방서장 정용민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음력 8월 24일)

48년생 잃어버린 사람이 가슴을 두드린다.60년생 이웃사촌 경사에 덩달아 베풀는다.72년생 지존심은 별개 도움을 청해보자.84년생 기분 좋은 수확에 부자기가 되어보자.96년생 아름다운 추억이 가슴에 남는다.

49년생 과거가 다시 나타나 평화가 다시 온다.61년생 전군민이 응원원이 뒤를 받쳐 준다.73년생 꿈에 가까워지는 노력을 더해보자.85년생 새로운 환경에 발맞춰 가야 한다.97년생 내내 내내 순서 지켜가야 한다.

50년생 가슴을 추억하는 만남을 가져보자.62년생 못한다 거절로 원망을 풀어보자.74년생 반짝반짝 빛나는 재능을 풀어보자.86년생 이렇듯 저렇듯 고민을 더해보자.98년생 소리가 정화하 목표를 행해가자.

51년생 시련도 역경도 거뜬히 맞서보자.63년생 작지만 인기있는 선물 이 오고간다.75년생 무거운 짐이었던 숙제를 마쳐보자.87년생 걱정스럽던 얼굴이 내 환해진다.99년생 예의범절 깎듯이 겸손을 높여보자.

52년생 든든한 배낭을 밀천으로 삼아보자.64년생 허전한 가슴에 피랑 새가 날아온다.76년생 재바리지 않는 신념을 지켜내자.88년생 배고픈 지존심 입술을 물어보자.00년생 이기기가 아니다. 어른 노릇 해야 한다.

53년생 아프게 걸려있던 빛을 청산하자.65년생 뻔한 자랑보다 지갑을 열어보자.77년생 귀한 인연들과 추억을 만들어보자.89년생 따뜻한 마음편한 조건을 풀어보자.01년생 위기에서 근사한 반전에 성공한다.

54년생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올 수 있다.66년생 겸손한 자세 열린 마음 가져보자.78년생 배움 그대로 모범생이 되어야 한다.90년생 좋은 일 도하고 칭찬을 들어보자.02년생 못난 책임회피 후폭풍이 크게 온다.

55년생 관허하는 간성 마음으로 돌아온다.67년생 애누리 없는 경사 비 새겨 걸어간다.79년생 다 오오는 반음을 재촉해라.91년생 고리표를 떼고 각오를 다시 하자.03년생 운영원경이 경지해준 만남을 가져보자.

56년생 유유자적 평화 신선들을 해보자.68년생 초리한 명예보다 현실과 타협하자.80년생 끈끈해진 분위기 애정 표현해보자.92년생 고되고 힘든 작업 보람은 배가 된다.04년생 아름다운 상상은 현실이 되어간다.

57년생 맞다 하는 확실한 보고 달려가자.69년생 모르는 계약 침는 법도 알아내자.81년생 허황된 꿈이어도 포기하는 금물이다.93년생 세상에 중심으로 날개를 펼쳐보자.05년생 예쁜게 오는 유혹 수줍게 받아내자.

58년생 승부는 거칠고 강하게 해야 한다.70년생 행복이 담겨있는 선물을 받아보자.82년생 절대 겸손으로 불이익을 막아내자.94년생 부러움의 대상 계급장도 달린다.06년생 새다른 경향이 자신감을 더해준다.

47년생 희망과 다른 모습 속계가 남겨진다.59년생 깎자하는 흥정 얼굴을 두껍게 하자.71년생 길으로는 백 점 속수를 알아내자.83년생 상사했던 부진의 끝이 보여진다.95년생 잊으려 하지 마라. 진심만 보여보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이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안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 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